

2014. 7. 26. 7급 국가직 국어 [배미진 해설]

윌비스고시학원

동영상강의(홈페이지) : www.baemijin.com

배미진 교수

1.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보여 주는 예들로 묶인 것은?

- ① 늡는, 앗고
- ② 만형, 쇳불이
- ③ 산동네, 보름달
- ④ 생일날, 추진력

[정답] ③

★정답풀이

산동네[산똥네] : 사이시옷 현상 (표준발음28항)

보름달[보름딸] : 사이시옷 현상 (표준발음28항) <2014. 7월 7급 동형모의고사 6회 16번, 7회 8번>

표준발음 28항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ㄴ, ㄹ,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예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쑥], 술-잔[술잔]

예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빠], 밤-바람[밤빠람]

예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등-불[등뽕], 창-살[창쌀], 강-줄기[강줄기]

★오답풀이

① 늡는[늡는→능는] : 음절끝소리규칙, 비음화

앗고[안꼬] : 자음 축약

② 만형[마텥] : 자음 축약

쇳불이[쇳부치/췌부치] : 경구개음화

④ 생일날[생일딸] : 유음화

추진력[추진녀] : 유음화 예외, 비음화

※ <보기>에 해당되는 예제는? <2014. 7월 7급 동형모의고사 7회 10번>

<보기>

[표준발음 규정 제28항] :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ㄴ, ㄹ,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① 갈등[갈똥] ② 발등[발똥] ③ 감대[감따] ④ 젃소[젃쏘]

[정답] ②

★정답풀이 발등[발똥] : 표준발음 28항 ★오답풀이 ① 갈등[葛藤] : 표준발음 26항 ③ 감대[감따] : 표준발음 24항 ④ 젃소[젃쏘] : 표준발음 23항

※ 음운의 변동이 감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2014. 7월 7급 모의고사 7회 8번>

- ① 손사래[손싸래], 길가[길까], 책방[책뺑]
- ② 무릎 위[무르뵈], 젓어미[저더미], 옷 안[오단]
- ③ 샷일[상닐], 늑막염[능망념], 색연필[생년필]
- ④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벼훔치[벼훔치]

[정답] ① ★정답풀이 ① 손사래[손싸래], 길가[길까] : 사잇소리 현상(표준발음 28항), 책방[책뺑] : 된소리되기(표준발음 23항)

★오답풀이

②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난 뒤에 연음이 일어난 예, ③ ‘ㄴ’음 첨가 현상 있고, 비음화도 일어난 예, ④ 경계구음화 일어난 예

2.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글썩요, 아마 그 친구가 먼저 갔을 걸요.
- ② 이분이 우리 총무 팀의 팀장 겸 감사 부장이십니다.
- ③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을 겨우 알아 보시는 상황이 되었다.
- ④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 번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정답풀이

<7월 7급 모의고사 3회 6번, 1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예 국장V겸V과장, 열V내지V스물, 청군V대V백군, 이사장V및V이사들

★오답풀이

① 갔을 걸요 (X) → 갔을걸요 (O)

■ -ㄴ걸/-을걸 「종결어미」

「1」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예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너보다 키가 더 클걸.

「2」 (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차 안에서 미리 자 둘걸/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

③ 알아V보시는 (X) → 알아보시는 (O)

‘알아보다’는 합성어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알아보다 : 「동사」

「1」 조사하거나 살펴보다.

예 배편을 알아보다/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다.

「2」 눈으로 보고 분간하다.

예 그는 멀리서도 내 얼굴을 쉽게 알아봤다.

「3」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다.

예 후배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한다.

「4」 사람의 능력이나 물건의 가치 따위를 밝히어 알다. 예 이 일로 그의 인간성을 알아보게 되었다.

④ 한V번 (X) → 한번 (O)

■ 한번(一番)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예 언젠가 한번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 한번(一番) 「부사」

「1」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냄.

예 내가 이걸 한번 먹어 볼게/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가격이나 한번 물어봐.

「2」 기회 있는 어떤 때에.

- ㉠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언제 한번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
 『3』 ((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그 녀석 춤 한번 잘 춘다.

※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번 잊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3. 문장 부호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②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③ 춘원[6·25 때 납북]은 우리나라의 소설가이다.
 ④ 어머니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정답] ③

★정답풀이 <알찬 국어 1권 264~269쪽, 2014. 6월 동형모의고사 5회 8번>

춘원[6·25 때 납북] (X) → 춘원(6·25 때 납북) (O)

▶ 소괄호의 쓰임 :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 ㉠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 대괄호의 쓰임 :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는 '대괄호'를 쓴다.

- ㉡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 늦은 밤(夜)에 밤(栗)을 화롯불에 구워 먹었다. (X) <2014. 6월 동형모의고사 5회 8번>
 → 밤[夜]에 밤[栗]을 (O)

문 4. 문장 성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 지방의 행정, 문화, 교육 분야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② 노사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하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③ 예전에 한국인은 양만 따진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제는 양뿐 아니라 질을 아울러 따질 수 있게 되었다.
 ④ 해외여행이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은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것이 이른바 골드 미스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이다.

[정답] ③

★정답풀이

양뿐 아니라 질을 아울러 따질 수 있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앞의 체인 '양'과 뒤의 '질'의 문장성분이 동일하고 서술어 '따진다'와 호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알찬 국어 1권 421쪽~425쪽, 2014. 7월 7급 동형 모의고사 12회 8번>

① '도시의 모습'이 주어인데, 이 주어와 서술어 '담당해야 한다'가 서술어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고친 문장) → 이 도시가 이 지방의 행정, 문화, 교육 분야 등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O)

② '지연되다'의 주어를 알 수 없다. '무엇이' 지연되고 있는지 주어가 필요하다.

④ 해외여행이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은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X)

: 접속조사 '이나'로 묶인 '해외여행, 영화, 뮤지컬'은 서술어 '관람하다'와 모두 호응을 이루어야 하는데, '영화를 관람하다', '뮤지컬을 관람하다'는 호응이 되지만, '해외여행을 관람하다'는 서술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친 문장) → 해외여행을 하거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은 빼놓지 않고 관람하다. (O)

※ <접속조사 및 접속부사를 잘못 쓴 예>

- ㉠ 이 타이어는 소음과 제동력을 낮췄기 때문에 ~. <7월 7급 모의고사 12회 8번>
→ 소음은 낮추고 제동력은 높였기 때문에 (O)
- ㉡ 감자는 맛도 영양도 많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9급 모의고사 문제집 13회 3번>
→ 맛도 좋고 영양도 많아 (O)
- ㉢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색의 갈변과 고유의 맛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급 모의고사 문제집 13회 3번>
→ 갈변이 나타나고 고유의 맛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O)
- ㉣ 월드컵축구대표팀은 불확실한 패스워크와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 OO에 지고 말았다. <6월 동형모의고사 11회 4번>
→ 패스워크가 불확실하고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 (O)
- ㉤ 기재 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그 영수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6월 동형모의고사 11회 4번>
→ 기재 사항의 정정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O)

5. 다음 <표 1>과 <표 2>의 해석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표 1> ‘미안하다’의 청자 경어법 말 단계별 쓰임

말 단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하오	미안하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	합계
빈도(회)	303	328	151	67	474	201	53	1,577
비율(%)	19.2	20.8	9.6	4.2	30.1	12.7	3.4	100

<표 2> ‘죄송하다’의 청자 경어법 말 단계별 쓰임

말 단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오	죄송하네	죄송해	죄송하다	죄송	합계
빈도(회)	853	236	13	0	1	0	0	1,103
비율(%)	77.3	21.4	1.2	0	0.1	0	0	100

- ① ‘죄송하다’는 ‘미안하다’와 달리 하체체나 해라체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미안하다’는 ‘죄송하다’와 달리 모든 말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에 따른 쓰임의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③ ‘죄송하다’는 해체보다 높이는 말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④ ‘미안하다’는 해체가, ‘죄송하다’는 합쇼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미안하다’가 ‘죄송하다’보다 친근한 사람에게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알찬 국어 1권 174~175쪽 상대높임 구분> 이 문제는 독해 문제에만 볼 게 아니다. 상대높임법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높임법 문제로 봐야 한다.

표를 보면, '죄송하다'의 활용형은 '죄송합니다(853회/합쇼체)'와 '죄송해요(236회/해요체)'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다 높임의 표현은 맞으나 '죄송합니다'는 합쇼체로 격식체에 해당되고, '죄송해요'는 해요체로 비격식체에 해당된다. 비격식체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 것이나 격식체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즉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죄송해요'가 아닌 '죄송합니다'를 쓰므로 ③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

	합쇼체 격식체	해요체 <비격식체>	하오체 격식체	하계체 격식체	해체 <비격식체>	해라체 격식체	어법상 틀린 표현	
	아주 높임	두루 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두루낮춤	아주낮춤		
말 단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하오	미안하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	합계
빈도(회)	303	328	151	67	474	201	53	1,577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체	해라체		
말 단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오	죄송하네	죄송해	죄송하다	죄송	합계
빈도(회)	853	236	13	0	1	0	0	1,103
비율(%)	77.3	21.4	1.2	0	0.1	0	0	100

★오답풀이

- ① 표를 보면 '죄송하다'는 '하계체'와 '해라체'에서 빈도가 '0'이다.
- ② '미안하다'는 모든 말 단계에서 사용되므로 쓰임의 제약이 없다.
- ④ '미안하다'의 '해체'는 '미안해'로 가장 많은 빈도인 474번이 쓰이고 있다. '해체'는 비격식체로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가 가까울 때 쓰는 표현이므로 친근한 사람에게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6. 표준 언어 예절에 알맞은 표현은?

- ① 자기의 본관을 소개할 때 “저는 ○○[본관] ○씨입니다.”라고 한다.
- ②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 씨의 부인입니다.”라고 한다.
- ③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20대의 연예인을 소개할 때 “○○○ 씨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한다.
- ④ 어머니와 길을 가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어머니를 선생님께 먼저 소개한다.

[정답] ④

★정답풀이

<알찬 국어 1권 443쪽 언어예절 '소개할 때'를 참조>

중간에서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할 때, 다음의 순서로 한다.

- (1)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2) 손아래 사람을 순위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3)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는 (1), (2), (3)의 순서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남자 선생님을 만났다.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하는 순서(3)를 생각하지 않고, (1)을 따라 자기와 더 가까운 '어머니'를 선생님께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르다.

★오답풀이

① “저는 ○○[본관] ○씨입니다.” (X) → “저는 ○○[본관] ○가(哥)입니다.” (O)

▶ 남의 본관을 말할 때는 “그는 ○○[본관] ○씨입니다.”라고 한다.

② 부인 (X) → “저는 ○○○ 씨의 집사람(안사람, 처)입니다.” (O)

: ‘부인’은 예전에, 사대부 집안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현대에는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쓴다. 즉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내인 당사자도 자신을 ‘누구의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손님을 소개할 때 시청자나 방청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시다’란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

즉 “○○○ 씨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 (사회자가 방송 녹화 중에) 칸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어 다녀오신 전○○ 씨를 모시겠습니다. <2014. 7월 7급 모의고사 6회 9번>

→ 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 (자신의 관행본관(本貫)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저는 나주(羅州) ‘내(羅)’가(哥)입니다. (O) <2014. 7월 7급 모의고사 6회 9번>

※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본인과 의논한 후 연락하겠습니다.(X) <7월 7급 모의고사 3회 15번>

→ 집사람(O), 안사람(O), 처 (O)

7. 밑줄 친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부른 豫斷은 금물이다. - 지레짐작은

② 경제 발전에 전력을 傾注하다. - 기울이다

③ 운동자가 기쁨으로 充溢하다. - 가득 차다

④ 이 서류들을 잘 분류해서 編綴해 두어라. - 놓아

[정답] ④

★정답풀이

놓아 → 철해 모아

■ 편철하다(編綴--): 통신·문건·신문 따위를 정리하여 짜서 철하거나 모으다.

★오답풀이

① ■ 예단(豫斷): 미리 판단함. 또는 그 판단.

■ 지레짐작(--斟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하는 짐작.

② ■ 경주하다(傾注--):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이다.

③ ■ 충일하다(充溢--): 가득 차서 넘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본능과 소화력을 갖췄다. 어떤 동물은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음식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단일 식품 식생활’은 도박이다. 그 음식의 공급이 끊기면 그 동물도 끝이기 때문이다.

4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전 주자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고기를 먹었다.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일만 먹었을 것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선을 고기를 먹는지 여부로 정했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200만 년 된 유골 4구의 치아에서는 이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인류학자 맷 스폰하이머와 줄리아 리소프는 이 유골의 치아 사기질의 탄소 동위 원소 구성 중 ^{13}C 의 비율이 과일만 먹은 치아보다 열대 목초를 먹은 치아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생활 동위 원소는 체내 조직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발견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상당히 많은 양의 풀을 먹었거나 이 풀을 먹은 동물을 먹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같은 치아에서 풀을 씹어 먹을 때 생기는 마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식단에서 풀을 먹는 동물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래전에 멸종되어 26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 묻혀 있던 동물의 뼈 옆에서는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이 뼈와 석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다. 어떤 뼈에는 이로 씹은 흔적 위에 도구로 자른 흔적이 겹쳐 있다. 그 반대의 흔적이

남은 뼈들도 있다. 도구로 자른 흔적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남은 경우다. 이런 것은 무기를 가진 인간이 먼저 먹고 동물이 이빨로 뜯어 먹은 것이다. 우리의 사냥 역사는 정말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만 세대 정도다.

- ①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는 동물은 멸종될 위험이 있다.
- ② 육식 여부는 현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③ 석기와 함께 발굴된 동물 뼈의 흔적을 통해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 조사를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풀이

2문단 :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일만 먹었을 것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선을 고기를 먹는 지 여부로 정했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200만 년 된 유골 4구의 치아에서는 이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② 육식 여부는 현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X)

‘한때’라는 말로 보아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했었다’나 ‘그러나’라는 말로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 “단일 식품 식생활은 그 음식의 공급이 끊기면 그 동물도 끝이기 때문에 도박이다.”

: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는 동물은 멸종될 위험이 있다. (O)

③ 마지막 문단 “동물의 뼈 옆에서는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의 사냥 역사는 정말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만 세대 정도다.”

: 석기와 함께 발굴된 동물 뼈의 흔적을 통해 인간이 오래전부터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O)

④ 2문단 마지막 문장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식단에서 풀을 먹는 동물(초식동물)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9.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이미 그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서구 과학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당위성이 아닌 사실성으로 시작하고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삶의 세계 안에서 당위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학문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끌어들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왕왕 혼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라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특히 자연 과학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속에 당위성이 끼어들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 (㉡)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학문에서는 당위성과 사실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동양에서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연유하게 된다. (㉣) 한편 동양 학문이 지닌 이러한 성격이 치르게 되는 대가 또한 적지 않다. 결국 물질세계의 질서를 물질세계만의 논리로 파악하는 체계, 곧 근대 과학을 이루는 데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③

★정답풀이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학문에서는 당위성과 사실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 사

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이미 그(사실)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10.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특히 그와 같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라 할 때는 경험한 것 모두를 다 지칭하지는 않는다.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 약을 복용한 후나 우리 몸이 피로할 때 일어나는 일시적 변화는 학습이라 하지 않는다.

학습을 개념화하는 데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여 보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 하기도 하고, 지식에 초점을 두어 지식의 획득을 학습으로 보기도 하며, 정의적 측면을 강조 하여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 예를 들면 무엇을 배운 결과 삶의 보람을 느낀 것을 학습이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넓은 뜻으로 학습을 정의하자면, 학습은 경험에 의한 비교적 지속적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있는 거야.
- ②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겠네.
- ③ 학습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라는 성격을 지녀야 해.
- ④ 과학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이는 지적 변화에 초점을 둔 학습 개념이지.

[정답] ④

★정답풀이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있는 거야. (O)
: 1문단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학습도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겠네. (O)
: 1문단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학습의 개념이 성립하려면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라는 성격을 지녀야 해. (O)
: 2문단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1. 어문 규범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출산율, 자장면, 타슈켄트(Tashkent)
- ② 갯수, 숫양, 모차르트(Mozart)
- ③ 휴게소, 깊숙이, 컨셉트(concept)
- ④ 제삿날, 통틀어, 호치민(Ho Chi Minh)

[정답] ①

★정답풀이

출산율 (O) : 한자음 ‘렬’, ‘률’은 모음이나 ㄴ음 뒤에서는 각각 ‘열’, ‘율’로 적고, 그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렬’, ‘률’로 적는다. <7월 7급 모의고사 11회 5번 ‘출산율’>

예 ‘렬’, ‘률’로 적는 예 : 결렬, 격렬, 작렬, 합격률, 기각률, 인상률

예 ‘열’, ‘율’로 적는 예 : 비열, 선열, 균열, 출산율, 백분율, 인하율

자장면 (O) : ‘자장면’과 ‘짜장면’ 복수 표준어. ‘짜장면’은 2011년에 새로이 등재되었다. <9급 모의고사 문제집 11회 8번>

타슈켄트(Tashkent) (O) :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다.

※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7월 7급 모의고사 11회 5번 ‘출산율’>

<보기>

(가) 이따가, 으뜸, 오빠, 읊짚

(나) 사뭇, 열핏, 자칫, 못

(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열역학(熱力學)

(라) 비율(比率), 출산율(出產率), 분열(分裂), 나열(羅列)

① (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② (나)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③ (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④ 한자음이 ‘렬’과 ‘률’인 음절의 표기는 모두 ‘열’과 ‘율’로 적는다.

[정답] ④ ★정답풀이 한자음 ‘렬’, ‘률’은 모음이나 ㄴ음 뒤에서는 각각 ‘열’, ‘율’로 적고, 그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렬’, ‘률’로 적는다.

★오답풀이

② 갯수 (X) → 개수(個數) (O)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음이 [개쑤]로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표기는 ‘개수’로 하여야 한다.

한자 어휘에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다. <알찬국어 1권 52쪽>

예 치과(齒科), 내과(內科), 화병(火病), 초점(焦點), 대가(代價), 개수(個數), 백지장(白紙張), 마구간(馬廐間), 기차간(汽車間)

수라간(水刺間), 수라상(水刺床), 제사상(祭祀床), 전세방(傳貰房), 월세방(月貰房), 소주잔(燒酒盞), 맥주잔(麥酒盞)

③ 컨셉트 (X) → 콘셉트 (O) <알찬국어 1권 320쪽>

④ 호치민 (X) → 호찌민 (O) <알찬국어 1권 320쪽>

※ 맞춤법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7월 7급 모의고사 2회 6번>

① 솔직이, 깊숙이, 알찍이

② 틈틈이, 꼼꼼이, 곰곰이

③ 더우기, 깎두기, 얼루기

④ 푸석이, 깔쭉이, 오목이

[정답] ④ ★정답풀이 푸석이 (O), 깔쭉이 (O), 오목이 (O) : 모두 맞음.

★오답풀이

① 솔직이 (X) → 솔직히 (O)

② 꼼꼼이 (X) → 꼼꼼히 (O)

③ 더우기 (X) → 더욱이 (O)

12. 밑줄 친 어휘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② 불길이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③ 바닷가에서 새우를 불에 그슬어서 먹었다.

④ 나는 열 문제 중에서 겨우 세 개만 맞혔다.

[정답] ②

★정답풀이 <알찬 국어 1권 245쪽>

걸잡을 (X) → 걷잡을 (O)

- 걷잡다 : 「1」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예 걷잡을 수 없는 사태
「2」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예 그를 연모하는 마음은 걷잡을 수 없다.
- 걸잡다 :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예 그의 키는 걸잡아 봐도 180센티미터는 되어 보인다.

★오답풀이

① ■ 돈구다 <알찬국어 1권 259쪽>

: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 예 안경의 도수를 돈구다.

구별

■ 돈우다 <7월 7급 모의고사 4회 18번 '돈우다'>

- 「1」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예 호롱불의 심지를 돈우다./발끝을 돈우어 창밖을 내다보다.
- 「2」 밀을 꺾거나 쌓아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예 벽돌을 돈우다.
- 「3」 감정이나 기색 따위를 생겨나게 하다. 예 신바람을 돈우다./신명을 돈우다./화를 돈우다./호기심을 돈우다.
- 「4」 정도를 더 높이다. 예 달빛이 더욱 적막을 돈우었다.
- 「5」 입맛을 당기게 하다. 예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돈우었다.

③ ■ 그슬다 :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 <9급 모의고사 문제집 11회 6번 '그슬다'>

예 장작불에 털을 그슬다/새우를 불에 그슬어서 먹다.

구별

■ 그을다 : 햇볕, 불, 연기를 오래 쬌어 검게 되다. 예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다.

④ ■ 맞추다 <알찬국어 1권 248쪽> <6월 모의고사 9회 3번>

- 「1」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 「2」 ((주로 '보다'와 함께 쓰여))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 예 시험이 끝나면 반 아이들은 서로 답을 맞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구별

■ 맞히다 <알찬국어 1권 248쪽>

- 「1」 문제에 대한 맞는 답을 내놓다. 예 정답을 맞히다. 열 문제 중 세 개를 맞히다.
- 「2」 눈, 비 따위의 당음을 받게 하다. 예 아이를 비를 맞히고 말았다.
- 「3」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게 하다. 예 나는 그를 바람을 맞히다.
- 「4」 침, 주사를 맞게 하다. 예 아이에게 예방 주사를 맞히다.
- 「5」 표적에 맞게 하다. 예 과녁에 화살을 맞혔다/돌멩이로 도둑의 얼굴을 맞히다.

※ 다음 제시어를 문맥에 모두 맞게 쓴 것은? <7월 7급 모의고사 4회 18번>

- ① 거치다 : 온기를 받아 뿌영게 서렸던 등피의 습기가 거치며 방 안이 밝아 왔다.
걸히다 :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특별히 견힐 문제는 없다.
- ② 걷잡다 : 그의 키는 대충 걸잡아 봐도 180센티미터는 되어 보인다.
걸잡다 : 그녀가 그를 연모하는 마음은 걸잡을 수 없다.
- ③ 가름 :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자가 승패를 가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늠 : 이 경기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④ 돈우다 : 안경의 도수를 돈우어 비뚤다.
돈구다 : 입맛을 돈구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정답] ③

13. 다음 ㉠~㉣ 중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과 가장 밀접한 표현은? <알찬국어 기본서 2권 134쪽>

松根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 꿈(에) 흔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딴를 내 모르랴, ㉠上界에 眞仙이라. 黃庭經一字를 엇디 그릇 닐거 두고, 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으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北斗星기우려 滄海水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이 翳翳하야 兩腋을 추혀 드니, 九萬里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 논화, ㉢億萬蒼生을 다 醉게 밍근 後의, 그제야 고터 맞나 쏘 흔 잔 ㅎ갓고야. 말 디자 鶴을 타고 九空의 올라가니, 空中玉簫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씌여 바다를 구버 보니, ㉣기뢰를 모르거니 ㄱ인들 엇디 알리.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 비친 디 업다.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정답풀이

보기 지문의 내용은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先天下之憂而憂(선천하지우이우), 後天下之樂而樂(후천하지락이락)’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긴 후에 즐긴다.’는 말이므로 ㉢의 ‘수많은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라는 말과 가장 밀접하다.

※ 읽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6월 동형모의고사 15회>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 꿈에 흔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딴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眞仙仙이라. 黃黃庭庭經經 一일字字를 엇디 그릇 닐거 두고, 人인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으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흔 잔 머거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화風풍이 翳翳하야 兩兩腋腋을 추혀 드니, 九九萬萬만 里리 長長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四海海에 고로 논화, 億億萬萬만 蒼蒼生生을 다 醉취게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맞나 쏘 흔 잔 ㅎ갓고야.”
말 디자 鶴鶴을 타고 九九空空의 올라가니, 空空中中 玉玉簫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씌여 바다를 구버보니, 기뢰를 모르거니 ㄱ인들 엇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千山山萬萬萬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 ① 화자는 꿈속에서 신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② 꿈속에서 화자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마지막 구절로 보아 이 작품은 변격가사이다.
④ ‘어제런가 그제런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한자성어는 비몽사몽(非夢似夢)이다.
⑤ 이 작품의 작가는 송강 정철이다.

[정답] ③

14.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 정기 국회에 새 법안을 상정하였다.
○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다.

- ① 詳定-排出 ② 上程-輩出
③ 上程-排出 ④ 詳定-輩出

[정답] ②

★정답풀이

■ 상정(上程) [위오를 (상), 길이 단위법착해아랄보일 (정)]
: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

■ 배출(輩出) [수레가 잇닿은 모양잇따를무리지을무리 (배), 날 (출)]
: 인재(人材)가 잇따라 계속하여 나옴.

㉞ 인재의 배출/훌륭한 기술자 배출이 우리 학교의 목표이다.

구별

■ 상정(詳定) : 나라의 제도나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액, 공물액 따위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오랫동안 변경하지 못하게 하던 일.

■ 배출(排出) : 「1」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㉞ 가스 배출/노폐물 배출/오염 물질 배출/공해 배출 업소

「2」 『생물』 동물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여 항문으로 내보내는 일.

※ 동일한 유형의 문제

밑줄 친 한자의 표기가 바른 것은? <6월 동형모의고사 7회 8번>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① ㉠ 誘致 ㉡ 貸出

② ㉠ 誘致 ㉡ 對出

③ ㉠ 留置 ㉡ 貸出

④ ㉠ 留置 ㉡ 對出

[정답] ①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바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人間の 離別을 모르니 그를 불워 하노라.

① 돌부처에 대한 신앙을 풍자하고 있다.

② 작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마지막 줄에 있다.

③ 무정의 존재에 빗대어 작자의 감정을 표현했다.

④ 한 줄은 모두 네 개의 호흡 단위(음보)로 끊어진다.

[정답] ①

★정답풀이

돌부처는 무정물로서 제시된 것이지 신앙의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시조는 종장에서 주제가 드러난다.

③ 작가는 돌부처에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시조는 각 장이 4음보로 되어 있다. <알찬국어

초장 :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중장 : 바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종장 : 人間の 離別을 모르니/ 그를 불워/ 하노라./ (*참고 : 종장의 둘째음보는 5음절 이상이어야 한다.)

16. 다음 글의 바로 앞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의 글에서도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의 가치와 규범, 법과 도덕, 그리고 일상적인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념적으로 표현한다면 완벽하게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 즉 사회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프로이트나 에릭슨, 피아제 등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동양에서도 인지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변화·확장된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少年易老學難成
- ② 人生七十古來稀
- ③ 他山之石可以攻玉
- ④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정답] ④

★정답풀이 <알찬국어 3권 55, 83쪽>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글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의 가치와 규범, 법과 도덕, 그리고 일상적인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는 글로 보아 바로 바로 앞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이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자왈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三十而立(삼십이립)하고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하고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하고 六十而耳順(육십이이순)하고
七十而從心所欲(칠십이종심소욕)하되 不踰矩(불유구)라 - 論語(논어) 爲政編(위정편)

[현대어 풀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뜻이) 확고히 섰고, 40세에 의혹되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 ①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학난성) :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
- ②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 : 사람이 일흔 살까지 살기란 예로부터 드문 일이라는 말.
- ③ 他山之石可以攻玉(타산지석가이공옥)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룸.

1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우린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나)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옛것을 모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주(周)나라의 제도를 본땔던 역적 왕망(王莽)이 예악(禮樂)을 수립했다는 격이며, 공자와 얼굴이 닮은 양화(陽貨)가 만세(萬世)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다) 아야!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취에 구애되는 것이 병이고, 새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상도(常道)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이다. 참으로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글이 옛날 글과 같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새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괴상하고 허황되고 지나치게 치우친 글을 쓰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임시 조처로 세 길 높이의 나무를 옮기게 하는 것이 통상의 법령보다 중요하다는 격이고, 이 연년(李延年)의 새로 만든 간드러진 노래를 종묘(宗廟)의 음악으로 연주하여도 좋다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새것을 만들겠는가?

-박지원, ‘초정집서(楚亭集序)’ 중에서-

- ① (다)-(가)-(라)-(나)
- ② (나)-(가)-(다)-(라)
- ③ (다)-(라)-(나)-(가)
- ④ (나)-(라)-(가)-(다)

[정답] ④

★정답풀이

- (나)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중략)
그러니 어찌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 (라) 그렇다면 새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중략)
그러니 어찌 새것을 만들겠는가?
- (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중략)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 (다) (상략) 참으로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글이 옛날 글과 같을 것이다.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녀들이 휴전선 위의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질 양이면 그만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굵어 놓곤 했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누가 이해하리오. 새가 고향 땅의 부모님이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나에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중략)... 그래서 지금 보는 바다는 예전보다 파도가 훨씬 높았고 해일을 쳐 복상을 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넓이가 더욱 까마득히 넓게 보였다. 그리고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이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길 뿐이었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중에서-

- ① ㉠은 '나'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고, ㉡은 '나'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 ② ㉠은 '나'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고, ㉡은 '나'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은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고, ㉡은 '나'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④ ㉠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식게 하는 존재이다.

[정답] ①

★정답풀이

'도요새'를 발견했을 때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는 말에서 도요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고,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말로 보아 나와는 대비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19.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 연구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대표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라도 그것의 장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려 노력해야 하며 문제점이 정말로 발견되었을 때는 기존 이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더 나은 이론을 도출하려는 도전적 태도로, 부정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확보하기 전에 무책임하게 여러 장점을 지닌 이론을 폐기하는 완고한 태도로도 읽힐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을 그는 '비판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순전히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포퍼의 지적 영향력은 과학철학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이기도 했다. 전체주의와 역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부각하는 입장으로 나아갔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는 근거는, 역사란 미리 정해진 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 모여 개인의 수준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었다.

- ① 비판적 태도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한다.
- ② 비판적 태도는 역사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③ 비판적 태도는 불특정 개인보다 사회를 먼저 고려한다.
- ④ 비판적 태도는 갈등하는 이념 간의 타협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

[정답] ①

★정답풀이 1문단 마지막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순전히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적 태도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한다’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2문단에서 포퍼가 역사주의를 비판한다고 했으므로 비판적 태도가 역사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 ③ 2문단에서 그의 비판은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부각하는 입장으로 나아갔다는 말이 나오므로 불특정 개인보다 사회를 먼저 고려한다는 말은 틀리다.
- ④ 1문단에서 “궁정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더 나은 이론을 도출하려는 도전적 태도로, 부정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확보하기 전에 무책임하게 여러 장점을 지닌 이론을 폐기하는 완고한 태도로도 읽힐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을 그는 ‘비판적’이라고 규정했다.”라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갈등하는 이념 간의 타협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가는 자신이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 쓰는 사람이다. 그가 발견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일 수도 있고 본능의 진실이거나 영혼의 전율일 수도 있다. 어쨌든 소설가는 그것을 써서 발견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발견자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심란한 얼굴로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자들의 관심이 문학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은 차라리 표면적인 위기라고 한다. 정보 혁명이 초래한 현실의 복잡성 때문에 인생을 관찰하고 뭔가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무력감이야말로 한층 더 심층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 버렸다. 또 독자 스스로 이야기의 중요 지점에 개입하여 뒷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퍼 텍스트 픽션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CD로 출판된 셸리 잭슨의 하이퍼텍스트 픽션 ‘패치워크 걸(Patchwork Girl)’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중 인격의 역동성과 여성적인 몸의 상징성을 잘 표현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소설은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삶의 궁극적인 의문들을 다뤄 온 소설가들에게 작품이 네트워크 위에 떠서 음악, 사진, 동영상과 결합돼 가는 이런 변화는 확실히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소설가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만큼 본질적인 변화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① 정보 혁명과 소설의 몰락
- ② 디지털 시대와 소설가의 변화
- ③ 소설가의 사명과 소설의 본질
- ④ 소설과 하이퍼텍스트 픽션의 대결

[정답] ②

★정답풀이 윗글의 내용을 요약 : 디지털 시대의 변화로 인해 소설가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소설가의 존재 이유를 흔들 만큼의 본질적 변화는 아니다.

윗글의 주요 내용 :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발견자(소설가)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심란한 얼굴로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인생을 관찰하고 뭔가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무력감이야말로 한층 더 심층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독자와 작가(소설가)의 구별을 없애 버렸다. 소설가들에게 작품이 네트워크 위에 떠서 음악, 사진, 동영상과 결합돼 가는 이런 변화는 확실히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소설가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만큼 본질적인 변화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국가직 7급 출제 유형

문법		독해	
음운론	1	글의 제목	1
높임법	1	문장 삽입	1
언어 예절	1	내용 일치	2
한글맞춤법 어휘	1	순서 배열	1
표준어/외래어 표기	1	내용 추론	1
띄어쓰기	1		
올바른 문장 쓰기(문장 성분 호응)	1		
한글맞춤법 중 문장 부호	1		
漢字(漢文)		문학	
한자(漢字) 어휘	2	고전 문학 (시조)	1
한문(漢文) 문장	2	현대 문학 (소설)	1

국어(한문포함)	A	3	2	3	3	3	4	4	2	3	4	1	2	3	2	1	4	4	1	1	2
----------	---	---	---	---	---	---	---	---	---	---	---	---	---	---	---	---	---	---	---	---	---